"겨울 방학, 아이와 '키즈 패키지' 호캉스 떠나볼까?"

〈호텔+바캉스〉

호텔업계, 어린이 동반 가족 공략
유명 캐릭터·동화 등 콘셉트 다양
박물관 등 체험학습 패키지 선봬

국내 호텔들이 겨울 방학을 앞두고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을 대상으로 한 키즈 패키지 및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성으로 '호캉스(호텔+바캉스 합성어)족'을 유혹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월동 준비에 돌입한 국내 호텔들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겨울 호캉스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동심을 자극하는 패키지 테마로 부모와 자녀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키즈 딜라이트 윈터 패키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동화·캐릭터와 함께 호캉스를!

올 겨울에는 유명 캐릭터나 동화를 콘셉트로 한 패키지를 보다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롯데월드호텔은 카카오프렌즈와 손 잡고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룸'을 오픈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관련 패키지를 선보인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로 꾸며진 객실에서의 1박을 기본으로 캐릭터 인형과 스티커를 각 1개씩 제공한다.

서울신라호텔은 '메리 윈터 위드 무민' 패키지를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선보인다. 동화 속 눈 덮인 무민 마을 콘셉트로 꾸며진 '무민 키즈 라운지'를 호텔 3층에 위치한 연회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또 비즈니스 디럭스룸 1박과 함께 무민 키즈 라운지 입장(성인 2인, 소인 1인), 무민 대형 인형, 쁘띠플래닛의 샴푸와 바디로션 세트 등이 제공된다.

켄싱턴호텔 평창에서는 '아이 러브 키즈 패키지'를 통해 코코몽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수페리얼 객실 1박과 뷔페 레스토랑 '그린밸리' 조식 3인(성인 2인, 소인 1인) 등이 제공되며, 코코몽 캐릭터가 그려진 에코백과 치약·칫솔 세트, 스티커 등 굿즈가 제공된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은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 패키지를 출시했다. 스탠다드 객실 1박과 노보텔 강남에서 단독 제작한 어린왕자 아트램프를 포함한 다양한 어린왕자 웰컴 기프트가 제공된다. 또 호텔 레스토랑 20% 할인, 체크아웃 시 제공되는 깜짝 선물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신라호텔의 '메리 윈터 위드 무민' 패키지. /호텔신라

◆'스테이케이션'을 보다 특별하게

호텔들은 가족 여행을 위해 호텔을 찾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족'을 위해 다채로운 패키지를 준비했다. 스테이케이션은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거나, 집 근처 또는 도심 명소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랜드 힐튼 서울은 체험학습 테마 패키지인 '홀리 졸리(Holly Jolly) 패키지'를 출시했다. 자녀 1명을 포함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및 서대문 형무소 입장권 3매, 역사 보드게임 '고피쉬(GOFISH)'를 제공한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키즈 딜라이트 윈터 패키지'를 이용하면 코엑스 아쿠아리움 티켓 2매가 제공된다. 패키지 고객 전용 공간인 키즈 라운지는 미취학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오감만족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약 1100여 권의 책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존과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플레이존, 호텔 셰프가 준비한 키즈 전용 메뉴와 음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스낵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산타 클로스가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산타를 만날 수 있는 패키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윈터케이션 패키지'를 이용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가 객실을 직접 찾아 선물을 전달하는 '시크릿 산타 이벤트'를 선사한다. 또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입장 및 스케이트 렌탈권 2인 등이 함께 제공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랄라블라, '유이라' 등에 업고 매출 고공행진

뷰티 인플루언서 '김수미' 브랜드
씨더매직 톤업크림, 매출 1위 차지

H&B(헬스앤뷰티)스토어 랄라블라가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와 손잡고 매출 효과를 톡톡히 봤다.

11일 랄라블라는 지난달 1일 단독 론칭한 뷰티 브랜드 '유이라(EUYIRA)'의 '씨더매직 톤업크림'과 '써스트 릴리프 하이드레이팅 앰플' 2개 제품이 온·오프라인 스킨케어 부문에서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초기 목표 수량의 200%를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론칭 첫날에 전 매장에서 품절 사태를 빚은 '씨더매직 톤업크림'은 랄라블라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출시 직후인 11월 첫째 주(5~9일) 대비 12월 첫째 주(3~7일)의 매출은 약 183.5% 증가했다.

'유이라'는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인 김수미 대표가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다.

랄라블라는 유이라 자사몰에서만 만날 수 있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되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한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온라인 1인 마켓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점, 유이라의 제품력 등이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랄라블라는 유이라의 인기에 힘입어 '퍼밍페이셜 토너'와 '스킨퍼펙팅 모이스쳐라이징 크림', '리얼밤밤' 등 기초 제품 라인업을 추가했다. 온라인몰에서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와 립스틱, 컨실러 등의 색조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랄라블라는 앞으로도 다양한 뷰티 아이템들을 발굴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랄라블라에 입점한 '유이라'의 대표상품 '씨더매직 톤업크림'. /랄라블라

베어파우 덕다운 패딩부츠 /GS샵

한파에 꽁꽁 언 발 걱정 STOP! GS샵, 방한부츠·방한화 인기

다운패딩·퍼안감 적용 기능성 강조

일찍 찾아온 추위에 롱패딩과 방한화가 인기다.

홈쇼핑 채널 GS샵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방한화 편성을 대폭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예년 겨울의 경우 롱부츠나 앵클부츠 같은 스타일을 강조한 패션부츠들이 유행했으나 올 겨울은 다운패딩이나 퍼안감을 적용해 발 끝까지 따뜻함을 강조한 방한화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GS샵은 운동화, 스니커즈를 제외한 신발 편성의 대부분을 방한부츠와 방한화에 할애하고 있다.

전국에 강추위가 닥쳤던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 '쇼미더트렌드' 시간을 통해 방송된 '베어파우 덕다운 패딩부츠'는 동시 주문이 2500명까지 치솟으며 30분만에 1만2000세트를 팔아치웠다. 8억원이 넘는 실적이다. 눈, 비를 튀겨주는 발수 원단에 덕다운을 충전재로 사용하고 내피에 기모를 한 번 더 감쌌으며 양털 혼방 인솔로 방한 효과를 높였다.

앞서 오후 12시50분부터 방송된 '프로스펙스 윈터키퍼 슈즈'는 여성용 5200켤레, 남성용 2800켤레가 각각 판매되며 방송 종료 전에 주요 색상과 사이즈가 매진됐다. 예상 목표보다도 25% 정도 초과한 실적이다. 3M사가 개발한 단열소재인 '신슐레이트'가 발 전체를 감싸고 포근한 기모안감 인솔을 사용한 방한화로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다. '보행 안정감이 향상된 신발'로 특허를 받았으며 여성용의 경우 5Cm 키높이 효과도 있다.

높아진 방한화 인기에 힘입어 GS샵은 이번 주에도 '제옥스 카울라 퍼부츠'의 론칭 방송을 비롯해 '베어파우 스웨이드 와플부티', '린 퍼펙트 방한슈즈', '모르간 패딩부츠', '랜드스케이프 방한부츠', '금강 PGA 방한 부츠' 등 6번의 방한화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GS샵 트렌드패션팀 최포근히 MD는 "롱패딩 열풍 덕분에 캐쥬얼한 옷차림이 유행하고 있어 클래식한 부츠보다는 캐주얼한 방한화가 대세다. 올 겨울도 작년에 이어 강추위가 예고되고 있어 GS샵은 보온, 발수, 미끄럼방지 등 기능성에 스타일까지 잡은 다양한 방한화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호텔

유네스코한국委에 수익 5천만원 기부

롯데호텔은 10일 롯데호텔서울 피콕스위트에서 열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롯데그룹 전 계열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판매한 특별 패키지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과 세계유산 보호 활동 확산 등을 위해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정환 대표이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김정환 롯데호텔 대표이사가 10일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호텔